
2025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보고서

2025. 10.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 목 차 ||

I. 조사개요	1
1. 조사목적	1
2. 조사대상 기간	1
3. 조사실시 기간	1
4. 조사대상	1
5. 조사방법	1
6. 조사항목	1
7. 집계방법	1
8. 기업경기실사지수 작성방법	1
II. 2025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	2
1. 종합 경기전망	2
2. 응답업체 분포	3
3. 항목별 경기전망	4
4. 업종별 경기전망	4
5. 규모별 경기전망	5
6. 매출유형별 경기전망	5
7. 지역별 경기전망	6
8. 6월 이후 체감하는 변화	6

I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전북지역 제조업체의 2025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분석하여 기업의 경영계획 및 정부의 경기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데 있음.

2. 조사대상 기간

- 2025년 3/4분기(7, 8, 9월) - 실적기간
- 2025년 4/4분기(10, 11, 12월) -전망기간

3. 조사실시 기간

- 2025년 9월 1일 ~ 2025년 9월 11일

4. 조사대상

- 전북지역 4개상의(전주, 익산, 군산, 전북서남)관할 제조업체 중 무작위 표본 추출에 의거 121개 업체로부터 회수

5.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팩스 및 이메일 조사함.

6. 조사항목

- 종합 경기전망 ○ 규모별 경기전망 ○ 업종별 경기전망
- 매출유형별 경기전망 ○ 지역별 경기전망 ○ 기타 경제상황

7. 집계방법

- 회수된 조사표를 업종별(전북특자도 제조업체의 주요 업종인 8개 업종), 매출유형별(수출, 내수기업), 지역별(전주, 익산, 군산, 전북서남)로 분류한 후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집계·처리하였음.

8. 기업경기실사지수 작성방법

- 조사대상업체가 분기별로 느끼는 체감경기를 각각 전분기와 대비하여 호전(상승, 증가), 악화(하락, 감소), 불변(보합)으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함
- 기업경기 실사지수는 다음 식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text{기업경기실사지수 (B.S.I)} = \frac{\text{호전표시 업체수} - \text{악화표시 업체수}}{\text{총 유효응답 업체수}} \times 100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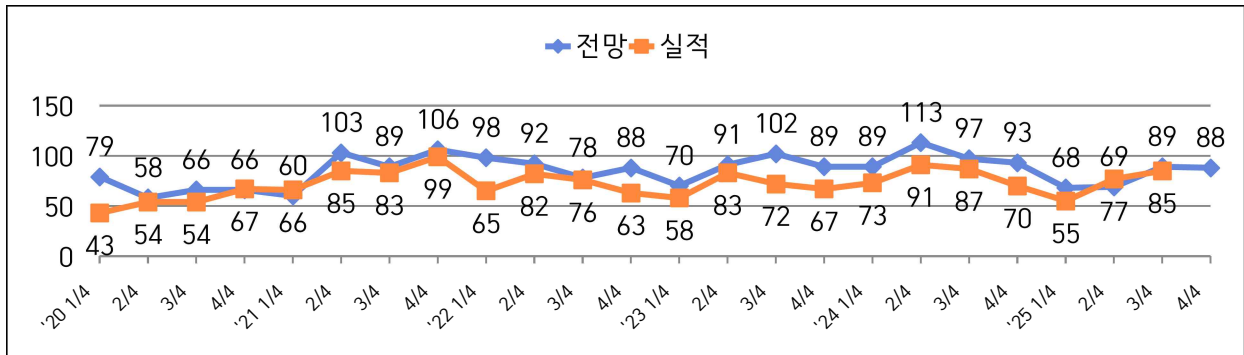
$$\text{BSI} = \text{Business Survey Index} \\ 0 \leq \text{BSI} \leq 200$$

1. 종합 경기전망

**4/4분기 제조업체 BSI ‘88’로 6분기 연속 부진
대내외 불확실성 장기화로 경기 회복 지연**

- 전북지역 제조업체들은 새 정부 출범과 경기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
-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전주·익산·군산·전북서남·김제 상공회의소)가 도내 제조업체 12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88’로 집계되어 6분기 연속 기준치(100)을 하회한 것으로 나타남.
- BSI는 2분기 ‘69’에서 3분기 ‘89’로 반등하며 회복 기대감을 보였으나 4분기 들어 다시 ‘88’로 하락해 경기 개선 기대가 약화된 것으로 조사됨. 이는 대내적으로 고물가 장기화, 소비 위축, 금융비용 부담 확대와 함께 대외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한·미 관세 협상 교착, 미·중 갈등, 중동 정세 불안 등 복합적 불확실성이 지속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됨.
- 이에 따라 지역 기업들은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비해 위기 대응 체질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나설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정책 당국은 단기적 경기부양을 넘어 투자 확대와 내수 진작을 견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통상환경 변화 대응, 금융·세제 지원, 에너지 비용 안정화 등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적 노력이 요구됨.

【 전북특별자치도 제조업 BSI 추이 】



(단위 : B.S.I, 전분기대비)

분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구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전망치	79	58	66	66	60	103	89	106	98	92	78	88	70	91	102	89	89	113	97	93	68	69	89	88
실적치	43	54	54	67	66	85	83	99	65	82	76	63	58	83	72	67	73	91	87	70	55	77	85	

2. 응답업체 분포

□ 응답업체 분포를 보면 39.7%(48개사)는 4분기 경기가 ‘악화될 것’ 이라고 응답했으며, 35.5%(43개사)는 ‘비슷할 것’ , 24.8%(30개사)는 ‘호전될 것’ 이라고 응답함.

□ 이는 지난 3분기 조사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소 확산되었던 회복 기대감이 불확실성 지속으로 다시 약화된 결과로 해석됨.

【 응답업체 분포현황 】

구 분	2025년 3/4분기 전망	2025년 4/4분기 전망
호 전	26.4%(29개사)	24.8%(30개사)
비 슷	36.4%(40개사)	35.5%(43개사)
악 화	37.3%(41개사)	39.7%(48개사)
계	100.0%(110개사)	100.0%(121개사)

※ ()는 응답업체 수

3. 항목별 경기전망

- 항목별 경기전망은 매출액(86), 영업이익(80), 설비투자(91), 자금사정(70) 등 모든 지표가 기준치 100을 하회함. 특히 자금사정 지수는 ‘70’으로 가장 낮아 매출 감소, 이자 부담, 원가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2025년 4/4분기 항목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실적)

구 분	매 출 액	영업이익	설비투자	자금사정
BSI	86 (82)	80 (78)	91 (101)	70 (69)

※ ()는 지난 3/4분기 BSI 실적 수치

4. 업종별 경기전망

- 업종별 경기전망은 바이오농식품(110), 금속기계(108)는 4분기 경기 전망이 기준치(100)를 상회하여 경기가 ‘호전’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전기전자(83), 자동차부품(77), 화학(64), 섬유 의복(50) 업종은 모두 기준치를 밑돌아 전반적인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2025년 4/4분기 업종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실적)

구 분	바이오농식품	섬유 의복	화학	비금속	금속기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기 타
BSI	110 (121)	50 (67)	64 (76)	100 (56)	108 (88)	83 (33)	77 (69)	50 (83)

※ ()는 지난 3/4분기 BSI 실적 수치

- 바이오농식품(110) 업종은 신제품 출시, 신규 거래처 확보, 수출 물량 증가 등 긍정적 요인에 힘입어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
- 금속기계(108) 업종은 난방기기 제품의 계절적 수요 확대가 반영되며 전 분기 대비 전망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비금속(100) 업종은 아스콘 등 공사 발주 증가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매출 상승과 함께 경기 흐름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자동차부품(77) 업종은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 미국 관세 부담, 완성차 업체 발주 감소 등으로 전반적인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화학(64) 업종은 원자재 가격 상승, 경쟁 심화, 글로벌 수요 둔화가 겹치며 수익성이 악화되어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분석됨.

5. 규모별 경기전망

- 대·중견기업(76)과 중소기업(90)의 BSI는 전 분기(72, 88)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을 하회함.
- 대·중견기업은 글로벌 수요 위축과 대외 불확실성으로 회복세가 제한적이며, 중소기업은 내수 회복 지연으로 본격적인 경기 반등까지는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2025년 4/4분기 규모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실적)

구 분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BSI	76 (72)	90 (88)

※ ()는 지난 3/4분기 BSI 실적 수치

6. 매출유형별 경기전망

- 수출기업(89)은 한·미 관세 협상 교착, 글로벌 경기 둔화, 물류비 상승,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 요인으로 전망치가 전 분기보다 하락함.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아 어려움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 내수기업(87)은 경기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와 금리 인하 지연으로 소비심리 회복이 지체되고 있음. 생활물가 부담과 자금 조달 애로가 겹치며 내수 회복세가 제한적인 상황임.

【 2025년 4/4분기 매출유형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실적)

구 분	수출기업	내수기업
BSI	89 (79)	87 (85)

※ ()는 지난 3/4분기 BSI 실적 수치

7. 지역별 경기전망

- 전주(93), 익산(90), 군산(85), 전북서남(70) 등 모든 지역의 지수가 기준치 100을 밑돌아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익산과 군산은 전 분기 대비 지수가 크게 개선되며 회복 기대를 보였으나 전북서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지역 간 체감 격차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2025년 4/4분기 지역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실적)

구 분	전 주	익 산	군 산	전북서남
BSI	93 (93)	90 (80)	85 (70)	70 (80)

※ ()는 지난 3/4분기 BSI 실적 수치

8. 6월 이후 경영환경에 있어 체감하는 변화

8-1. 6월 이후 美 관세 등 무역환경의 불확실성 변화

-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0.4%)이 ‘변화 없음’ 이라고 답했으며, ‘일부 해소’는 25.2%, ‘크게 해소’는 3.4%에 그침. 반면 ‘일부 증가’는 19.3%, ‘크게 증가’는 1.7%로 나타남.

-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한·미 상호관세 협상 교착 등으로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한 데 따른 결과로, 지역 기업들이 대외 무역여건에 대해 여전히 높은 수준의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美관세 등 무역환경의 불확실성】

구 분	크게 해소	일부 해소	변화없음	일부 증가	크게증가	총 계
비율(%)	3.4	25.2	50.4	19.3	1.7	100.0

8-2. 6월 이후 기업경영 관련 법·제도 부담

- 기업경영 관련 법·제도 부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업경영과 관련된 법·제도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전체의 절반을 넘는 50.4%가 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 가중’이 39.3%, ‘크게 가중’이 11.1%로 나타났다. 반면 ‘변화 없음’은 36.8%, ‘일부 경감’은 11.1%, ‘크게 해소’는 1.7%에 그쳐 법·제도 규제가 기업경영에 여전히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결과는 기후변화 대응 환경 규제, 노동 제도 변화, 상법 개정 등 급격히 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경영 불확실성 확대에 직면하고 있으며 준비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기업경영 관련 법/제도 부담】

구 분	크게 해소	일부 경감	변화없음	일부 가중	크게 가중	총 계
비율(%)	1.7	11.1	36.8	39.3	11.1	100.0

- 업종별로는 섬유·의복(54.5%), 화학(64.0%), 자동차부품(64.3%) 업종은 과반 이상이 법·제도 변화에 따른 부담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비금속(55.6%)과 전기전자(57.1%) 업종도 절반 이상이 일부 부담 증가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남. 반면 금속기계 업종은 ‘변화없음’이 76.9%로 높아 제도적 부담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됨.

【 업종별 기업경영 관련 법·제도 부담 】

구 분	크게 해소	일부 해소	변화없음	일부 증가	크게증가	총 계
바이오농식품	-	20.7	41.4	34.5	3.4	100.0
섬 유 의 복	3.4	6.8	35.2	40.9	13.6	100.0
화 학	-	8.0	28.0	48.0	16.0	100.0
비 금 속	11.1	11.1	22.2	55.6	-	100.0
금 속 기 계	7.7	15.4	76.9	-	-	100.0
전 기 전 자	-	-	42.9	57.1	-	100.0
자 동 차 부 품	-	-	35.7	42.9	21.4	100.0
기 타	-	-	50.0	16.7	33.3	100.0

8-3. 6월 이후 전반적인 지역 경기 상황 변화

- 전반적인 지역 경기 상황을 묻는 조사에서 전체 응답의 43.7%가 ‘악화’로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 악화’가 34.5%, ‘크게 악화’가 9.2%로 나타남. 반면 ‘변화 없음’은 31.1%, ‘일부 호전’은 21.8%, ‘크게 호전’은 3.4%에 그쳐, 지역 경기에 대한 전망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됨

【 전반적인 지역경기 상황 】

구 분	크게 호전	일부 호전	변화없음	일부 악화	크게 악화	총 계
비율(%)	3.4	21.8	31.1	34.5	9.2	100.0